

Date: 12 Elul 5786 (August 25, 2026)

Torah Portion: Ki Tavo

Topic: 신성한 도우심과 자유 의지, 제 1 부

신명기 29 장 3 절과 4 절에는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토라를 읽은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받은 후, 기적을 목격하며, 여호와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경험한 지 40 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아직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 답은 토라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된 지식으로만 유지하는 것과, 그 토라의 기억 된 지식이 의미하는 참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에 기록해 주신 모든 계명을 알고 그 요구 사항을 전후 상황을 이해하며 심지어 그것을 지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지성의 세계에 그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 줄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을 "깨닫는 마음"은 지식의 층보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감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알아보며,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물리-감정-지성과 영성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모세께서 왜 즉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40 년 세월을 상기시켰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옷은 낡지 않았고, 신발은 견고했으며,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날"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관한 미드라시의 가르침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따르리이다"(출 24:7)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비범한 수준의 헌신에 도달했습니다. 훗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게 하였으면 좋겠도다"(신 5:26).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으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현인들은 그들의 침묵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뱀 부리는 사람이 매우 위험한 뱀을 보고는 "누가 이 뱀을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뱀 부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따라서, 그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누가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우주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변함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으나, 순종을 갈망하는 마음을 자신들 안에 지속해서 보존해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명백한 난제를 제기합니다. 현인들은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늘의 손에 달려 있다"(베라코트 33b)라고 가르칩니다. 곧, 하늘에 대한 경외심은 인간의 선택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 항상 의롭게 살 것이라고 보장하신다면, 이는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지혜, 순종, 그리고 영적 힘을 위해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께 그러한 선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하르샤는 아보다 자라(Avodah Zarah) 5a 와 베라코트(Berachos) 10a 에 대한 주석에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구별된 두 층의 이해력을 통하여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이 영적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스스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근본적인 선택을 그를 대신하여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순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요마 38b)라고 가르치며, 또한 이와 비슷하게 "하늘은 사람이 따르기로 작정한 길로 그를 인도하신다"(마코트 10b)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영적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자유 의지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자유 의지의 행사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께 회개하거나, 미혹을 이겨내거나,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는 이미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방향을 의도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여호와 엘로힘께서 인류에게 심어 주신 자유 의지로 의로움을 선택했으며, 이제 그 선택을 가장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올려드리기 위해,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행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선언하며 그 속에 담긴 열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해도, 그러한 요청이 그들의 자유 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실함을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엘로힘의 신성한 도움을 받을 길을 더 활짝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롬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 신. 30:19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엘로힘 (권능; Powers)이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